1위 ABC 공인 유료·발행부수 4년 연속 1위

스포츠동아

2021년 9월 30일 목요일
www.sportsdonga.com



글로벌 1위 '오징어게임' 주연 이·정·재 인터뷰

"456억원 상금이 내 것이라면? 하, 어떻게 쓸지 엄두가 안나요"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게임'으로 글로벌 신드롬을 이어가고 있는 이정재(사진). "목숨을 내걸고 치러내야 하는 게임이 주는 긴장감과 함께 인간들의 관계성이 안기는 긴장감"을 인기의 요인으로 꼽았다. 이어 "내 또래뿐 아니라 좀 더 젊은이들과 해외에까지 연기를 보여줄 기회여서 감사하다"며 웃었다.
사진제공 | 넷플릭스

신드롬급 인기에 얼떨떨…너무 고맙죠
나라면 힘들어도 목숨 건 게임 안할 것
영화제작·연출·시나리오까지 '에너지 갑'
그 힘은 선배급이라는 부담감 때문이죠

"456억원? 너무나 큰돈 아닌가."

인용에서 빠진 마지막 문장이자 전제일 수 있다. '내게 오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만약 456억원이라는 돈을 쥐게 된다면 당신은 가장 먼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상상해보자는 말에 "엄두가 나지 않는다"는 말이야말로 솔직한 답이 될 수 있으리라.

세상의 대부분 사람에게는 '천문학적'으로만 들려올 규모의 456억원! 당신이라면 정말 그 돈으로 당장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불과 수천만원을 투자해 수천억원을 벌어들이는, 그야말로 비현실적일 것 같은 일이 실제로 벌어졌음이 드러나면서 더욱 수상해진 세상, 규모조차 상상할 수 없는 거액을 손에 쥔 자, 과연 게임의 승리자일까.

배우 이정재(48)에게도 456억원의 최우선 쓰임새를 상상해보라고 주문했다. 그는 "그런 돈이 내게 올까?" 되묻고는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공감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그래서 비현실적인 이야기는 더욱 현실감을 발휘한다. 17일 세상에 나온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게임' 속 이야기는 전 세계 TV 시청자와 온라인 이용자들의 지지 속에 공감의 크기를 키워가고 있다.

29일 오후 온라인 화상으로 만난 이정재는 이야기의 주역으로서 당당히 얻은 "자랑스러움"을 만끽하고 있었다.

-'오징어게임'이 세계적인 신드롬급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항상 영화나 드라마를 찍으면서 관객과 시청자가 좋아할까 고민한다. '오징어게임'은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나와 너무 감사하다. 한국영화나 드라마가 좀 더 세계에 더 많이 소개돼 공감을 이끌어내는 일이 자주 일어나길 바란다. 굉장히 한국적인 것을 세계에 알리는 이야기나 세계인이 공감하는 또 다른 색깔의 이야기도 많이 나온다. 그런 상상을 구현하는 영상기술도 뛰어나다. '어떻게 그런 상상을 했느냐'에서부터 '어떻게 적은 제작비로 좋은 퀄리티를 만들 수 있냐'는 등 해외 관계자들의 질문을 받곤 한다."

-'오징어게임' 말미에 등장하는 빨간색 머리가 잘 어울린다.

"극중 역할이 멋있는 캐릭터는 아니다. 마음이 멋지다. 그런 마음을 빨간색으로 표현한 것 아닐까. 하하!"

'오징어게임' 속 이정재는 공고를 나와 자동차 회사에서 일하다 구조조정으로 인해 희망퇴직했다. 그 직전 회사는 폐업을 선언했고, 그를 비롯한 노동자들은 이에 저항하지만 경찰의 무자비한 진압에 스러지며 결국 쫓겨났다. 치킨집 등 자영업에 뛰어든 그에게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기어이 사채에 손을 대고 일확천금을 꿈꾸며 도박으로 향한다. 그런 그에게 456억원을 쥘 수 있는 기회가 다가온다. 하지만 여섯 단계의 게임을 거쳐야 한다. 게임은 목숨을 담보로 하고, 그의 목숨값은 자신과 같은 처지에 놓인 다른 455명의 사람처럼 1억원에 해당한다.

결국 타인을 밟고 올라서지 않으면 죽음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극한의 상황. 당신이라면 어쩔 수 있을까.

"글쎄, 나라면 그런 무모하고 목숨을 건 게임은 좀….(웃음)"

이정재는 다만 "그만큼 절박한 상황과 게임을 치러낼 수밖에 없는 짠한 캐릭터를 떠올리며 진짜 나라면 상금을 가져갈 수 있나 상상"했을 뿐이다. 이를 통해 더욱 "처절해보이길 바랐다"고 말했다. ▶ 2면으로 이어집니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LG 정우영이 28일 잠실 롯데전 8회초 등판해 힘차게 공을 던지고 있다. 정우영은 1이닝 무실점으로 팀의 5-2 승리에 힘을 보태며 최연소 2년 연속 20홀드를 작성했다. 잠실 | 주현희 기자 teth1147@donga.com

최연소 2년 연속 20홀드 22세 셋업맨 정우영의 힘

후반기 16경기서 3승1패1세이브5홀드 화려
좌타자 약점 극복 중…LG 불펜 핵으로 우뚝

KBO리그 40년 역대 2호, 그리고 6호 기록이 하루에 나왔다. 전자는 원년부터 팀 전체의 힘으로 일궈냈다면, 후자는 개인의 꾸준함과 기량으로 만든 지표다. '불펜의 팀' LG 트윈스 뒷심의 상징, 정우영(22)의 존재감이다.

정우영은 28일 잠실 롯데 자이언츠전에서 5-2로 앞선 8회초 등판해 1이닝 1삼진 무실점의 깔끔한 투구로 이닝을 삭제했다. 아웃카운트 3개를 잡는 데 필요했던 투구수는 10개. 완벽투로 시즌 20번째 홀드를 기록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20홀드다.

2000년부터 공식 집계된 홀드는 중간계투의 훈장이다. 하지만 불펜투수의 특성상 롱런이 어렵기 때문에 2년 연속 20홀드 고지를 넘어선 사례 자체가 극히 드물다. 이 부문 최장기록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 연속의 안지만(전 삼성 라이온즈)이 보유 중이다. 올해는 주권(KT 위즈)이 2019년부터 이어진 기록을 3년 연속으로 늘렸다. 2년 연속은 이동현(전 LG)과 한현희(키움 히어로즈·이상 2013~2014년), 진해수(LG·2019~2020년)가 보유 중인데, 정우영이 이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서울고를 졸업한 2019년 프로 유니폼을 입은 그는 최연소 2년 연속 20홀드 기록자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정우영은 고우석과 더불어 LG 불펜의 핵이다. 정우영이 역대 6번째 2년 연속 20홀드 고지에 올라선 날, 고우석은 뒤이어 마운드에 올라 팀 통산 1200세이브의 주인공이 됐다. 전신 MBC 청룡을 포함한 트윈스 프랜차이즈 최다 세이브는 김용수(227개), 봉중근(109개), 이상훈(95개)에 이어 고우석(79개)이 4위다. 앞선 이름들의 무게감이 증명하듯 LG 불펜에는 전설들이 즐비했다. 그 뒤를 정우영과 고우석이 각자의 영역에서 잇고 있는 것이다.

올 시즌 리그 최고의 셋업맨 중 하나로 꼽기에 결코 부족함이 없다. 29일까지 55경기에서 7승3패2세이브20홀드, 평균자책점(ERA) 2.85를 기록했다. 특히 후반기 16경기로 범위를 좁히면 3승1패1세이브5홀드, ERA 1.62로 더욱 준수하다. 약점으로 꼽히던 좌타자 상대도 서서히 극복하고 있다.

데뷔 첫해 16홀드로 신인왕을 수상한 것을 시작으로 해마다 발전하는 투수. 최연소 2년 연속 20홀드를 작성한 정우영이 불펜투수의 롱런은 쉽지 않다는 통념을 깰 수 있을지 주목된다. 잠실 | 최익래 기자 ing17@donga.com

KMGM HOLD'EM & EVENT PUB
KMGM 홀덤 이벤트펍 가맹점 모집
30평미만으로 창업 가능 / 1억미만 소자본 창업 / 업종변경가능
외식 유통 프렌차이즈 KMGM에서 미래를 함께하실 점주님을 모집합니다.
창업 상담 : 1644-7861

K-SPOBET
NEW 신개념 베팅펍 프렌차이즈 총판모집
스포츠 / 축구 · 야구 · 농구 · 배구 · 홀덤 · 전종목
KSPOBET과 함께! 누구나 할 수 없는 창업이 성공한다!
문의 전화 : 010-8311-8411